

신라 天柱寺의 위치 비정 재고

이 현 태*

- I. 머리말
- II. 천주사 관련 기사의 비판적 검토
- III. 천주사 관련 명문 기와와 월지 출토 불상
- IV. 천주사의 위치 비정과 朝元殿·內院의 새로운 이해
- V.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 진평왕대에 창건된 천주사는 內帝釋宮으로 불렸으며, 內佛堂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천주사는 ‘경주 동궁과 월지’ 서편의 대나무숲과 연꽃밭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왔다. 이러한 판단은 천주사와 관련한 명문 기와와 『東京雜記』 등의 일부 문헌자료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천주사와 관련한 명문 기와는 출토지가 분명치 않거나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어서 판독이 맞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천주사와 관련한 명문 기와를 천주사의 위치 비정에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월지 안팎에서는 여러 점의 불상이 발굴되었는데, 특히 월지 서편의 2호 건물지 주변에서 출토된 금동제 귀 1쌍은 대형 불상이 봉안된 내불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00brain@hanmail.net

당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천주사와는 별개의 내불당이 궁궐 내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는 천주사 북쪽에 월지가 있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월지의 위치는 거의 예외 없이 천주사 북쪽으로 기술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不動石이라 불리는 큰 바위가 광복 이전까지 월지 남쪽에 남아 있었다는 전언도 주목된다.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보면 천주사는 지금까지 추정해 온 것과 달리 월지의 서쪽이 아니라 남쪽 일대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천주사의 위치는 진평왕대에 이미 궁궐이 월성 외곽으로 확장되던 일면을 보여주거니와, 월성 내부의 공간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삼국유사』 月明師兜率歌條를 재검토해 朝元殿과 內院은 천주사와 연관시키기는 힘들고, 월지 서편 건물군 및 東宮의 내불당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천주사, 동궁과 월지, 명문 기와, 내불당, 조원전

I. 머리말

『삼국유사』에 의하면 천주사는 內帝釋宮으로 불렸으며, 진평왕대에 창건되었다고 한다.¹⁾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內帝釋宮의 ‘內’는 궁궐 안을 가리킨다.²⁾ 이 때문에 천주사를 內佛堂의 효시로 이해하기도 하는데,³⁾ 천주사의 위치를 어디로 비정하느냐에 따라 신라 중고기 궁궐의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천주사는 궁궐 내에 조영되었던 만큼, 천주사의 위치 비정은 단순히 사찰 하나의 위치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신라 궁궐의 구조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천주사의 위치는 ‘경주 동궁과 월지’의 서쪽에 자리한 대나무숲과 연꽃밭 일대(뒤의 <그림 5> 참조)로 보는 경향이 굳어져 가는 듯하다.⁴⁾ 하지만 이러한 위치 비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천주사와 관련한 명문 기와는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수집된 명문 기와는 단 한 차례도 실물이 공개된 적

- 1) 『三國遺事』 卷1, 紀異1 天賜玉帶條, “第二十六白淨王, 諡眞平大王, 金氏. 太建十一年己亥八月即位, 身長十一尺. 駕幸內帝釋宮<亦名天柱寺, 王之所創>, 踏石梯, 三石并折.”
- 2)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52~253쪽.
- 3) 韓國佛敎研究院, 『新羅의 廢寺 1』, 一志社, 1974, 66쪽. 고려시대 이래의 궁궐 내의 불당을 검토하면서 그 연원을 천주사에서 찾으려는 경향(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119쪽; 황인규, 「고려시대 내원당과 고승-제 기록에 나타난 기사 검토 試攷-」, 『普照思想』 37, 普照思想研究院, 2012, 105~106쪽; 양혜원, 「조선 초기 궁궐 사찰 ‘내원당(內願堂)’의 설치와 변동」, 『韓國思想史學』 69, 韓國思想史學會, 2021, 89쪽)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4) 東潮·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跡 1-新羅篇(慶州)-』, 中央公論社, 1988, 165~166쪽; 안지원, 「신라 眞平王代 帝釋信仰과 왕권」, 『歷史教育』 63, 歷史教育研究會, 1997, 82쪽; 진성규·이인철, 『신라의 불교사원-역사·실화·유적·유물-』, 백산자료원, 2003, 23쪽; 국립경주박물관,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2008, 160~161쪽;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지역 폐사지 기초조사·연구』, 2012a, 105~108쪽; 신범규, 「신라 중고기 시위부의 활동범위와 주둔지 운용」, 『韓國史學報』 78, 高麗史學會, 2020, 57쪽; 이병호, 「백제와 신라 왕실 여성의 崇佛 활동과 尼寺」, 『百濟文化』 6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21, 48~49쪽.

이 없어서 과연 ‘天柱寺’와 연관된 명문이 새겨진 것이 맞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천주사 관련 명문 기와를 천주사의 위치 비정에 활용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또한 『東京雜記刊誤』나 『東京通志』 등에 천주사의 위치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실려 있음에도 선행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천주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위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종래의 연구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천주사와 관련한 문헌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 연구의 문제점도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다. 다음으로 천주사의 위치 비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천주사 관련 명문 기와와 월지 일대에서 출토된 불상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천주사의 위치 비정에 천주사 관련 명문 기와가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 나아가 월지에서 출토된 불상과 천주사의 상관관계도 짚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천주사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천주사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할 것이다. 아울러 기와에 천주사와 관련지어 검토되었던 『삼국유사』 月明師兜率歌條에 등장하는 朝元殿과 內院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이 신라 천주사의 위치 비정은 물론이고 내불당, 나아가 궁궐 구조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천주사 관련 기사의 비판적 검토

천주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 A. 제26대 白淨王의 시호는 眞平大王이고 김씨이다. 太建 11년 己亥(579) 8월에 즉위했는데, 키가 11尺이었다. 內帝釋宮<또한 天柱寺라고도 하는데, 왕이 창건하였다>에 행차했는데, 돌계단[石梯]을 밟으니 돌 3개가 한꺼번에 부러졌다. 왕이 좌우에 이르기를, “이 돌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어, 후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이 돌이) 곧 성안에 있는 5개 不動石 가운데 하나이다. 즉위한 원년에 天使가 궁전의 뜰[殿庭]에 내려와 왕에게 이르기를, “上皇께서 나에게 玉帶를 전해주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친히 꿇어앉아 받으시니, 그 후 그 사자는 하늘로 올라갔다. 무릇 郊廟의 큰 제사 때는 모두 이것을 착용했다.⁵⁾

사료 A에 따르면 內帝釋宮은 진평왕이 창건했으며, 天柱寺로도 불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에 內帝釋院과 外帝釋院을 두었는데, 이러한 명칭은 궁궐의 안과 밖이라는 위치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이를 염두에 둔다면 內帝釋宮의 ‘內’는 궐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⁷⁾ 내제석궁은 ‘궁궐 내에 자리한 帝釋을 모신 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천주사는 진평왕대에 帝釋信仰이 성행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⁸⁾

천주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는 김시습이 1473년에 지은 『遊金鰲錄』에 수록된 ‘天柱寺看花’라는 詩文이다. ‘天柱寺看花’에 관해 설명한 김시습의 細註를 살펴보면 천주사가 신라 왕들의 內佛堂이자 지금의 帝釋院으로, 國人들이 해마다 이름난 꽃을 절의 뜰에 심으며 복을 빌었는데 근자에 승려들이 모두 파가고 말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⁹⁾ 여기서 김시습은 천주사를 신라 궁궐 내에 자리한 내불당이면서 제석신앙에 바탕을 두고 호국을 목적으로 한 불교 의식을 거행하는 帝釋院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거니와, 나아가 적어도 15세기 후반까지는 천주

5) 『三國遺事』 卷1, 紀異1 天賜玉帶條, “第二十六白淨王, 諡眞平大王, 金氏. 太建十一年己亥八月即位, 身長十一尺. 駕幸內帝釋宮<亦名天柱寺, 王之所創>, 踏石梯, 三石并折. 王謂左右曰, 不動此石, 以示後來, 即城中五不動石之一也. 即位元年, 有天使降於殿庭, 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 然後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6) 안지원, 앞의 책, 252~253쪽.

7) 안지원, 앞의 논문, 82쪽; 李晶淑, 「眞平王代 王權強化와 帝釋信仰」, 『新羅文化』 16,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99, 5쪽.

8) 안지원, 앞의 논문, 81~84쪽; 李晶淑, 앞의 논문, 4~6쪽.

9) 金時習, 『梅月堂集』 卷12, 「遊金鰲錄」, “天柱寺看花, 卽新羅王內佛堂也, 今帝釋院也. 國人歲植名花于庭, 以獻祈福. 近時僧盡掘.”

사가 폐사되지 않고 법등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천주사가 내불당이었음은 다른 기록에서도 살펴진다. 1712년 경주부윤 權以鎭이 펴낸 『東京雜記刊誤』에는 崔唯淸이 지은 「道說國師碑銘」에 도선국사가 內佛堂 天柱寺에서 입적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¹⁰⁾ 그런데 정작 崔唯淸이 찬한 「도선국사비명」인 「玉龍寺 先覺國師 證聖慧燈塔碑銘」에는 그러한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동경잡기간오』에 수록된 ‘內佛堂 天柱寺’에 대한 부분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권이진은 지방 수령으로 근무하며 여가를 활용해 유적·유물을 현지 조사하고 부산 동래의 溫井碑를 직접 조사하여 관독하는 등 금석문 연구에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다.¹¹⁾ 더욱이 그는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箕城縣誌』를 비롯한 읍지 편찬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문헌 기록을 금석문이나 자신이 직접 조사한 자료와 비교하고 나아가 뚜렷한 증거가 없어 막연할 때는 결론을 유보하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¹²⁾ 이 같은 학문적 태도에 유의한다면 권이진이 아무런 근거 없이 도선국사가 ‘內佛堂 天柱寺’에서 입적했다고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동경잡기간오』에 의하면 天柱寺가 內佛堂이고 琴匣과 관련된 승려가 천주사의 승려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¹⁴⁾ 아쉽게도 『삼국유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뒤에서 제시하겠지만 해당 내용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데, 아마도 『동경잡기간오』를 찬술하

10) 『東京雜記刊誤』, 輿地勝覽以狼山爲鎭山非也條, “崔唯淸道說國師碑銘云, 師卒於內佛堂天柱寺.”

11) 金壽泰, 「有懷堂 權以鎭의 「東京雜記刊誤」」, 『道山學報』 6, 道山學術研究院, 1997, 48~49쪽; 梁承律, 「有懷堂 權以鎭의 新羅 溫井碑攷」, 『道山學報』 8, 道山學術研究院, 2001, 139~140쪽.

12) 金壽泰, 앞의 논문, 36~43쪽.

13) 종래에도 도선국사는 헌강왕의 초창으로 경주에 와 머문 적이 있고 당시 주석했던 절은 미상이므로, 이와 연관 지어 도선국사가 천주사에 주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안지원, 앞의 논문, 82쪽).

14) 『東京雜記刊誤』, 輿地勝覽以狼山爲鎭山非也條, “三國遺事亦曰, 天柱寺卽內佛堂, 琴匣僧乃此寺僧.”

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여겨진다. 이를 고려하면 『동경잡기간오』의 찬자가 최유청이 지은 다른 고승의 비문 내용을 「도선국사비명」으로 잘못 기술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¹⁵⁾ 「內佛堂 天柱寺」의 사료적 가치를 마냥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라의 내불당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료도 눈길을 끈다.

B-1. 제21대 毗處王<혹은 炤智王이라고도 한다> 10년 戊辰(488)에 天泉亭에 행차하였다. 이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 왕이 궁에 들어가 琴匣을 보고 활로 쏘았다. (거기에는) 뜻밖에 內殿의 梵修僧과 宮主가 몰래 내통하며 간통을 저지르고 있었다.¹⁶⁾

B-2. 天柱寺는 月城의 서북쪽에 있다. 속설에는 소지왕이 琴匣을 활로 쏘아 넘어뜨렸는데, 곧 이 절의 승려였다. 그 북쪽에 雁鴨池가 있다.¹⁷⁾

B-3. ①天柱寺는 月城의 서북쪽에 있다. 속설에는 소지왕이 琴匣을 활로 쏘아 넘어뜨렸는데, 곧 이 절의 승려였다. 그 북쪽에 雁鴨池가 있다. ②【新增】(천주사는) 곧 신라 왕의 內佛堂으로, 지금의 帝釋院이다. 國人들이 해마다 이름난 꽃을 (절의) 뜰에 심고 복을 빈다.¹⁸⁾

15) 참고로 최유청의 묘지명에 의하면 그는 海東先覺國師, 芬皇和諍國師, 圓應國師의 碑銘을 지었다고 한다(李蘭暎 編, 『韓國金石文追補』(再版), 亞細亞文化社, 1976, 168쪽). 현존하는 「선각국사비」와 「원응국사비」에는 천주사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芬皇寺 和諍國師碑」는 극히 일부만 남아 있어(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中世下)』, 亞細亞文化社, 1984, 902쪽) 도선국사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세 비명을 천주사와 연관시키기는 힘들다. 최유청이 經·史·子·集에 해박하고 불경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수백 편의 문장과 詩文을 남겼음(朴漢男, 「崔惟清의生涯와 詩文分析 - 《同人之文四六》 등에 수록된 詩文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24, 國史編纂委員會, 1991, 122쪽)을 감안하면, 세 고승의 비명 외에 다른 승려의 비명을 착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16) 『三國遺事』 卷1, 紀異1 射琴匣條, “第二十一毗處王<一作炤智王>, 即位十年戊辰, 幸於天泉亭. 時有鳥與鼠來鳴. … 王入宮見琴匣射之. 乃內殿梵修僧與宮主潛通而所奸也.”

1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州府 佛宇條, “天柱寺, 在月城西北. 俗傳, 炤智王射琴匣而倒, 乃是寺僧也. 其北有雁鴨池.”

18) 『東京雜記』 卷2, 佛宇條, “天柱寺 在月城西北. 俗傳, 炤智王射琴匣而倒, 乃是寺僧也. 其北有雁鴨池 【新增】 卽新羅王內佛堂, 今帝釋院也. 國人歲植名花于庭, 祈福.”

『삼국유사』射琴匣條에는 소지왕 10년(488) 궁의 內殿에 梵修僧이 있었다고 전한다(B-1). 흔히 내전은 “국왕이 매일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집무실의 성격을 지닌 편전, 왕이 기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침전, 왕비와 후궁들이 기거하며 생활하는 중궁전 및 후궁전, 그리고 왕과 왕비, 후궁들을 보좌하는 宮吏 및 궁녀들이 기거하는 건물”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하곤 한다.¹⁹⁾ 하지만 내전에 그러한 성격의 전각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시기의 차가 있기는 하지만, 1021년 4월 상주에서 모셔 온 불사리 일부를 안치했다는 內殿道場의 존재²⁰⁾는 무척 흥미롭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內殿道場은 궁궐의 내전에 자리한 佛堂 시설, 즉 내불당이라고 한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1021년 5월에 경주 고선사에 있던 金羅袈裟와 부처의 뼈, 창립사에 있던 부처 어금니를 개경으로 가져와 내전에 안치했던 것²²⁾을 비롯해 고려시대에 불사리를 내전에 모셨던 수많은 기사와 내전에서 향을 사르며 기도하던 승려의 사례²³⁾ 등 내전에서 이루어진 불교 관련 행위는 충분히 이해된다. 특히 『삼국유사』에 언급된 고려 예종대의 十員殿²⁴⁾은 내전에 자리한 불교 관련 전각 가운데

19) 전덕재,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207~208쪽.

20) 許興植 編著, 「開城 玄化寺碑」, 『韓國金石全文(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449쪽, “續又於辛酉載四月內, 於尙州管內中牟縣, 復有舍利五百餘粒出現, 浮動炤耀. 仍差近臣中樞副使尙書右丞李可道往彼迎來, 聖上亦備禮郊迎. 果覩白紅二色, 各有光明. 遂令分減五十餘粒來就當寺, 於主佛中心安置了, 乃令擔塑, 裝成供養. 其餘竝將入安置內殿道場, 親自供養.”

21) 한기문, 「고려시대 內願堂의 기능과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8, 한국중세사학회, 2014, 275쪽.

22) 『高麗史』卷4, 世家4 顯宗 12年 5月 戊子條, “命尙書左丞李可道, 往取慶州高僊寺金羅袈裟·佛頂骨, 昌林寺佛牙, 並置內殿.”

23) 『三國遺事』卷3, 塔像4 前後所藏舍利條, “大宋宣和元年己卯<睿廟十五年>, 入貢使鄭克永·李之美等所將佛牙今內殿置奉者是也. … 得此實錄於當時內殿梵修前祇林寺大禪師覺猷, 言親所眼見使予錄之.”

24) 『三國遺事』卷3, 塔像4 前後所藏舍利條, “於是睿宗大喜, 奉安于十員殿左掖小殿, 常鑰匙殿門, 施香燈于外, 每親幸日開殿瞻敬. … 更勅十員殿中庭, 特造佛牙殿安之, 令將士守之, 擇吉日, 請神孝寺上房蓋光, 領徒三十人, 入內設齋敬之.”

하나로,²⁵⁾ 내전 내 불교 전각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의례 행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고려하면 사료 B-1의 내전은 궁 내의 佛殿²⁶⁾ 또는 궁중의 佛堂²⁷⁾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싶다. 조선 세종대에 許誦가 내불당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신라 때 사금갑 사건이 內願堂에서 일어났음을 거론한 점²⁸⁾도 이러한 추론에 힘을 더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慶州府 佛宇條에는 內殿의 焚修僧이 곧 천주사의 승려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B-2), ‘新增’이란 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내전의 분수승이 천주사의 승려라는 점은 『삼국유사』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국여지승람』의 찬자들은 『삼국유사』 외에 별도의 原典을 바탕으로 B-2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²⁹⁾ 따라서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천주사와 관련한 기록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69년에 편찬된 『東京雜記』의 佛宇條에도 B-2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으며, 여기에 더해 김시습이 ‘天柱寺看花’에 대해 설명한 細註를 추가로 ‘新增’하였다(B-3).

여기서 한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소지왕대 사금갑과 관련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승려를 천주사의 승려로 기술한 대목이다(B-2·3). 천주사가 진평왕대에 창건되었음은 앞의 사료 A에 언급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소지왕대의 분수승을 천주사의 승려라고 한 것은 단순한 誤記였을까? 종래의 연구에서는 사료 B-1의 내전을 불교 공인 이후에 천주사로

25) 한기문, 앞의 논문, 275~276쪽.

26) 金東華, 「新羅時代の 佛教思想」, 『亞細亞研究』 5-2,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2, 7쪽.

27) 辛鍾遠, 「新羅의 佛教傳來와 그 受容過程에 대한 再檢討」, 『白山學報』 22, 白山學會, 1977, 163~165쪽; 「新羅 佛教傳來의 諸樣相」,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156쪽; 이병호, 앞의 논문, 47쪽.

28) 『世宗實錄』 卷121, 世宗 30年 7月 21日 乙巳條, “許誦曰, … 臣本昏愚, 過蒙聖恩, 知無不言. 前朝之季, 致亂之事, 類皆出於內願堂. 新羅之時, 有射琴甲之事, 亦出於內願堂也, 豈不深可畏哉.”

29) 안지원, 앞의 논문, 82쪽.

중창한 것으로 이해하거나,³⁰⁾ 소지왕대 이래로 부처를 치성하던 내전이 진평왕대에 이르러 제석신앙이 왕권 강화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면서 내제석궁으로 불리게 되고 나아가 궁궐 내의 내불당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여겼다.³¹⁾ 두 견해 모두 소지왕대의 내전을 천주사의 전신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내전과 천주사가 다 같이 내불당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같은 곳에 자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궁궐 밖에 자리한 사천왕사 등의 왕실 사원에 成典이 설치되었음에도 궁궐 안의 왕실 사원인 내제석궁에 성전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고 사원에만 설치된 成典이 永昌宮에 설치된 점에 착안하여 영창궁을 내제석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³²⁾ 만일 내제석궁이 영창궁이었다면 사료 A·B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내제석궁 또는 천주사에 관해 설명하면서 영창궁이란 명칭을 언급했을 법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울러 천주사가 궁궐 내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굳이 성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영창궁의 성격을 둘러싸고 天地神을 奉祀하기 위한 神宮이라는 설,³³⁾ 성동동 전랑지가 영창궁이라는 설,³⁴⁾ 삼국통일을 완수한 직후 무열왕을 추송하기 위한 願堂이라는 설³⁵⁾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천주사와 영창궁을 같은 실체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왕의 연구에서 천주사와 연관 지어 살폈던 또 다른 자료는 『삼국유사』의 月明師兜率歌條이다.

30) 辛鍾遠, 앞의 논문, 165쪽; 앞의 책, 156~157쪽; 李晶淑, 앞의 논문, 5쪽.

31) 안지원, 앞의 논문, 82~83쪽.

32)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韓國史研究會, 1983, 101~102쪽.

33)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釜山史學會, 1984, 100쪽.

34) 전덕재, 앞의 책, 224~225쪽.

35) 朴南守, 「신라 「法光寺石塔記」와 御龍省의 願堂 운영」, 『韓國古代史研究』 69, 韓國古代史學會, 2013, 241~246쪽.

C. ①경덕왕 19년 庚子(760) 4월 초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日官이 아뢰기를, “인연이 있는 승려를 청해 散花功德을 드리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朝元殿에 단을 깨끗이 만들고 (왕은) 靑陽樓에 행차하여 인연이 있는 승려를 기다렸다. 이때 月明 스님이 발독길을 건너가 마침 남쪽 길로 들어섰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 단을 열고 기도문을 짓게 하였다. … ②이윽고 해에 나타난 괴변은 사라졌다. 왕이 이를 가사히 여겨 좋은 차 1봉과 수정 염주 108개를 내려주었다. ③홀연히 몸가짐이 곱고 바른 한 동자가 나타나 무릎을 꿇고 차와 염주를 받아 들고, (조원)전의 서쪽 작은 문으로 나갔다. 월명은 이를 內宮의 사자로 여겼고 왕은 (월명) 스님의 從者로 여겼는데, 서로 알아보니 모두 그렇지 않았다. 왕이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를 쫓으니, 동자는 內院의 탑 속으로 숨었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화 미륵상 앞에 있었다.³⁶⁾

사료 C에는 760년 해가 두 개나 나타나는 괴변이 일어나자 경덕왕은 조원전에 단을 만들고 월명 스님을 불러 의식을 거행했고, 그러자 괴변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선학들이 주목했던 것은 內宮과 內院이었다(C-③).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동경잡기』 佛宇條에 의거해 천주사와 소지왕대의 내전을 같다고 보면서 “『遺事』 卷五 「月明師兜率歌」條에 따르면 이곳에 목조탑이 있고, 그 남벽에 미륵의 畫像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³⁷⁾ 이와 더불어 진평왕대에 창건된 內帝釋宮을 줄여서 사료 C에 등장하는 것처럼 內宮 또는 內院으로 불렸다는 주장도 나왔다.³⁸⁾ 여기에 힘입어 천주사는 堂塔 가람을 경영하였고 탑 남벽에는 미륵보살상이 그려져 있었다는 데까지 논의가 이르렀다.³⁹⁾

36) 『三國遺事』 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條,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并現, 挾旬不滅. 日官奏, 請緣僧作散花功德, 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靑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行于阡陌, 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 旣而日怪即滅. 王嘉之, 賜品茶一襲, 水精念珠百八箇. 忽有一童子, 儀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 明謂是內宮之使, 王謂師之從者, 及互徵而俱非. 王甚異之, 使人追之, 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37)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同和出版社, 1975, 53~54쪽.

38) 黃壽永,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 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3, 12쪽.

39) 辛鍾遠, 앞의 논문, 166쪽; 앞의 책, 157쪽;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2a),

그런데 소지왕대의 내전은 월성 안에 위치하지만, 천주사는 앞의 사료 B-2·3에 언급되어 있듯이 월성의 서북쪽 또는 월지⁴⁰⁾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기 때문에 양자의 위치가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⁴¹⁾ 더구나 조원전이 월성 안에 위치하였으리라는 그동안의 이해⁴²⁾에 비추어보면 월성 밖에 위치한 천주사와 조원전의 서쪽에 자리한 內院을 동일한 실체로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이 점을 간과한 채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사료 C의 內院을 천주사와 관련짓지 않고 사료 B의 분수승이 머물던 內殿에 있었던 사찰로 추정하는 견해가 발표⁴³⁾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조원전이 월성 안에 있었음을 전제할 경우, 더 이상 천주사와 사료 C의 內宮·內院을 연관시키기는 곤란하다. 나아가 사료 C를 바탕으로 천주사의 내부 구조를 다루는 것도 자연스레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천주사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거론된 문헌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진평왕대에 창건된 천주사가 제석신앙과 관련이 깊고 내불당의 성격을 지녔음은 그동안의 논의로 분명해진 것 같다. 이와 달리 천주사와 소지왕대 분수승이 머무른 內殿의 위치를 동일시하거나 『삼국유사』 월명사도솔가조의 內宮·內院을 천주사의 내부 구조와 연관 지어 설명한 부분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 사료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소홀히 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천주사와 관련한 사료 가운데는 사료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경우도

105쪽.

40) 사료에는 안압지로 나오지만 신라 때 이 못의 명칭이 월지이기 때문에(韓炳三, 『雁鴨池名稱에 關하여』, 『考古美術』 153, 韓國美術史學會, 1982, 41쪽), 이하에서는 안압지 대신 월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1) 이 점은 윤선대, 『新羅王宮과 國家寺刹 -그 분포와 도로 체계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5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0, 101쪽에서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42) 전덕재, 앞의 책, 197~203쪽; 여호규, 「6~8세기 신라 왕궁의 구조와 정무·의례 공간의 분화」,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2014, 64쪽.

43) 윤선대, 「역사 속의 월성」, 『한성에서 만난 신라 월성』(특별전 도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a, 264쪽.

확인된다. 이를테면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불우조에 천주사가 월성의 서북쪽에 있다고 하면서도 천주사의 북쪽에 월지가 있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천주사의 위치를 비정한 여러 논의가 있었음에도 천주사와 관련한 사료를 깊이 있게 비판한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이 점에서도 천주사의 위치 비정에 대한 논의는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Ⅲ. 천주사 관련 명문 기와와 월지 출토 불상

천주사는 고고 자료를 중심으로도 위치 비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天柱’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천주’명 기와는 모두 2점이다.

그 가운데 1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그림 1>, 유물번호: 본관 14313)으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불교사원실에 전시되어 있다. 이 기와는 잔존 길이 8.7cm, 잔존 너비 6.6cm, 두께 1.5cm의 암키와 편으로, 통일신라시대 기와로 보고되었다.⁴⁴⁾ 암키와의 등 부분에는 方廓이 있고 방곽 안에 ‘天柱’라는 글자를 縱書로 左書·양각하였다. 완형이 아니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방곽 안 글자의 잔존 형태로 미루어 명문은 2행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처럼 1행만 새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곽 왼쪽에는 魚骨文의 일부로 추정되는 斜線文이 새겨져 있다. 대체로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寺刹銘 평기와 가운데 세장방형의 방곽 안에 1행의 명문이 縱書로 나타나고 명문 주위에 어골문과 사격자문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된 유형은 10세기 말~11세기 말로 편년된다고 한다.⁴⁵⁾ 그렇다면 ‘천주’명 암키와는 통일신라가 아니라 고려 전기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4) 國立慶州博物館, 『新羅瓦塼』(특별진 도록), 2000, 366쪽.

45) 柳煥星,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 新羅史學會, 2010, 150~152쪽.



〈그림 1〉 ‘天柱’銘 암키와 편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그림 2〉 ‘天柱’銘 수막새
(영남대학교박물관, 2005)

또 다른 ‘천주’명 기와는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품(〈그림 2〉, 유물번호: 2655)이다. 이 기와는 지름이 15.9cm, 두께는 2.4cm의 수막새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고되었다.⁴⁶⁾ 자방의 圓圈 안에 ‘天柱’라는 글자를 縱書로 양각하였다. 자방 바깥으로는 복엽의 연화문을 배치하였고 그 외곽으로 간결한 형태의 보상화문을 새겼으며, 월성 및 ‘동궁과 월지’ 등에서 이와 유사한 형식의 연화보상화문 수막새가 출토된 바 있다.⁴⁷⁾ 하지만 연화보상화문 수막새 가운데 이처럼 자방에 명문을 새긴 예는 좀처럼 찾기 어렵고, 재질도 조금 무른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형식의 수막새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천주’명 수막새의 제작 시기는 신라하대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천주’명 암키와(〈그림 1〉)가 ‘동궁과 월지’의 서편 대나무밭·연꽃밭 일대에서 발견되었고 이 일대가 일찍이 天柱垌로 불린 점에 근

46) 영남대학교박물관, 『隱逸의 秀麗한 夢 新羅 瓦當』(특별전 도록), 2005, 63쪽;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유물목록집1 -와진-』, 2008, 215쪽.

47)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2000), 30쪽·60쪽.

거하여 천주사의 위치는 이곳으로 비정되었다(<그림 5> 참조).⁴⁸⁾ 여기에 ‘천주’명 수막새(<그림 2>)도 같은 지점에서 출토되었다는 견해⁴⁹⁾가 더해지면서 천주사의 위치 비정은 더욱 힘이 실렸다.⁵⁰⁾ 이렇듯 ‘천주’명과 2점이 천주사의 위치를 ‘동궁과 월지’ 서편의 대나무밭·연꽃밭 일대로 비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월지 서편 건물지 주변에서 ‘天柱寺’가 새겨진 기와편이 발굴되었고,⁵¹⁾ 1974년 11월 경주박물관의 지표조사 시 월성과 월지 중간 지점의 민가 철거지구에서 천주사로 추정할 수 있는 명문 기와가 수습되었다고 한다.⁵²⁾ 당시 월지 일대의 정비와 조사에 관여했던 정재훈에 따르면 「朴毅長 비석」 옆의 민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天柱寺’의 ‘天’자가 떨어져 나간 기와가 나오고 그곳을 정리해 보니 절터로 확인되었다고 한다.⁵³⁾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천주사의 위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천주사와 관련한 명문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천주’명 기와 2점(<그림 1·2>)은 발굴을 통해 출토된 것이 아니라 구입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천주’명 수막새(<그림 2>)는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장기관에서조차 출토지를 비워두거나 ‘경주 부근’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다.⁵⁴⁾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천주’명 암키와(<그림 1>)는 1939년 경주

48) 東潮·田中俊明, 앞의 책, 165~166쪽.

49) 차순철, 「慶州地域 寺院出土 平瓦의 需給關係 考察 -專用瓦·共用瓦·交流瓦를 中心으로-」, 『불교미술사학』 5,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7, 5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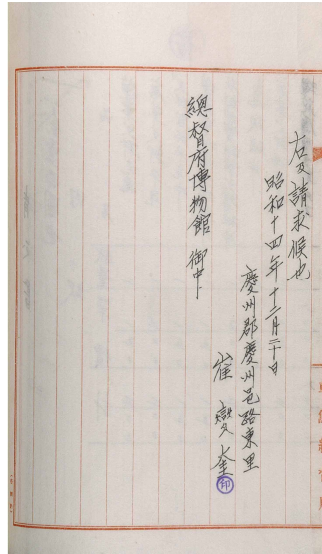
50) 국립경주박물관, 앞의 책(2008), 160~161쪽;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2a), 108쪽.

51) 조유진, 『발굴이야기 -왕의 무덤에서 쓰레기장까지, 한국 고고학 발굴의 여정-』, 대원사, 1996,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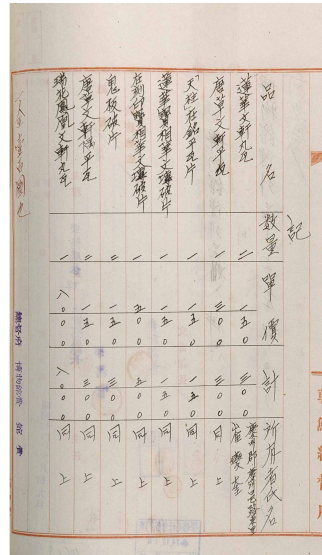
52) 「경주 천주사지 지표조사」 공문(1974.12.4.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분관 작성, <그림 6>) 참고.

53) 한국고고학회 편,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주역 정재훈(대담자: 박영복)」, 『일곱 원로에게 듣는 한국 고고학 60년』, 사회평론, 2008, 429쪽.

54) 영남대학교박물관, 앞의 책(2005), 63쪽; 앞의 책(2008), 215쪽.



〈그림 3〉 유물 구입 관련 청구서(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그림 4〉 박물관 진열품 구입 건(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그림 5> 전 천주사지 위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노동리에 거주하던 崔燮奎⁵⁵⁾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당시의 서류(<그림 3·4>)를 통해 확인되며, 이 기와에 ‘天柱’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음을 제외하면 구입 당시 출토지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 ‘천주’명 기와 2점 모두 어디에서 수습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천주사의 위치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 2점의 기와를 활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1974년 월지 서편의 민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습되었

55) 崔燮奎는 일제강점기 이래 1970년대까지 경주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는 1931년 1월 경주읍의 14개 신문지국을 통제하기 위해 창립된 慶州記友俱樂部의 庶務部幹事를 맡았고(『東亞日報』 1936년 1월 15일자 4면 「慶州記友俱創立」 기사), 같은 달에는 慶州 商工會의 新被選役員으로 선정되었다(『東亞日報』 1936년 1월 31일자 4면 「地方産業雜信」 기사). 1935년 4월에는 경주의 유치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慶州幼稚園期成會의 幹事로 선정되었고(『朝鮮日報』 1935년 4월 4일자 3면 「長年懸案中이든 慶州幼稚園期成」 기사), 광복 이후에는 1964년 12월부터 1975년 2월까지 경주문화원의 이사를 맡았다(경주문화원, 『경주문화원 50년사 -1964~2014-』, 2014, 119쪽).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분관

경주 1082.1-172 (2107) 1974. 12. 4.

수신 국립중앙박물관 장

참조 학예연구실장

제목 경주 천주사지 지표조사.

안압지 경곽공사에 따라 보호구역도 확장되어 그 보호 철책 기초작업시
 신라시대 사지가 일부 고랑되었다. 본 분관에서는 이 사지에서 천주사지로
 추정되는 명문 기와를 습득함으로써 이 지역이 궁성내의 내원인 천주사지임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본 분관은 천주사지의 지표조사와 사지의 습득조사를 12
 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여 사역보호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끝.

국립중앙박물관		결재	관 장
접수 일시	74년 12월 6일 13시 40분	지 시 사 함	
접수 번호	제 1898 호		
주무과	고고부		
담당자	이 강 종		
의결		1974년 12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분관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분관 장

<그림 6> 「경주 천주사지 지표조사」 공문(국가기록원 제공)

다는 명문 기와에 대해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
 면 조유전이 언급한 ‘天柱寺’명 기와와 1974년 경주박물관의 지표조사
 시 수습하였다는 명문 기와, 정재훈이 언급한 ‘天柱寺’에서 ‘天’자가 떨

어저 나간 기와는 서로 다른 기와가 아니라 같은 1점의 기와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기와에 대한 표현을 조금씩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기와는 사진이나 도면 등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고, 전언 등으로만 알려져 있을 따름이다.

필자는 몇 해 전 경주박물관에서 작성한 「경주 천주사지 지표조사」 공문(<그림 6>)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경향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그림 7>)를

접하면서, ‘천주’명 암키와(<그림 1>)와는 별개의 ‘天柱’ 또는 ‘柱寺’명 기와가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한편에서는



<그림 7> 『京郷新聞』 1974년 11월 28일자 7면 기사

월지 주변 건물지에서 ‘天柱寺’명 기와편이 발굴되었다는 지적⁵⁶⁾을 바탕으로 천주사의 위치 비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⁵⁷⁾ 이와 관련해 고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출토 맥락과 더불어 제 3자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의 제공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월지 서편의 민가에서 수습되었다는 명문 기와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으며, 명문 기와가 수습된 게 사실이라면 판독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명문 기와도 천주사의 위치 비정에 활용하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있다.

1970년대에 수습되었다는 천주사 관련 명문 기와와 비슷한 사례로는 일제강점기에 경주에서 수습되었다는 ‘右京’명 기와를 들 수 있다. 이 기와는 大坂金太郎의 전언으로 존재가 알려졌는데, 이미 1930년에도 소재

56) 조유진, 앞의 책, 61쪽.

57) 안지원, 앞의 논문, 82쪽; 신범규, 앞의 논문, 57쪽.

는 불분명한 상태였다.⁵⁸⁾ 그런데도 右京'명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전언은 신라 왕경이 左京과 右京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입론의 근거로 활용되었다.⁵⁹⁾ 하지만 '右京'명 기와의 실물은커녕 사진이나 탁본조차 전하지 않아서 혹 '右官'명 기와를 '右京'으로 잘못 판독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⁶⁰⁾ 나아가 '右京'명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전언을 제외하면 신라 왕경이 좌·우경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마땅치 않다. 이처럼 '右京'명 기와를 둘러싼 논의는 사진이나 탁본, 도면조차 남아 있지 않은 명문 기와를 다룰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주사와 관련된 명문 기와(<그림 1·2>)는 출토지 미상이거나 출토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실물 또는 사진·탁본 등이 전혀 공개된 적이 없어서, 이를 근거로 천주사의 위치를 비정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1970년대에 월지 서편에서 수습되었다는 명문 기와는 '右京'명 기와처럼 전언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천주사와 관련한 명문 기와에 근거하여 논의된 천주사의 위치 비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명문 기와 외에 천주사의 위치와 관련해 거론되었던 또 다른 자료는 월지 안팎에서 출토된 불상이었다. 경주의 신라 유적 가운데 사찰을 제외하면 월지 일대만큼 불상이 많이 출토된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점 때문에 東宮 내에 천주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⁶¹⁾ 이와 달리 천주사는 월성과 동궁 사이에 있음을 전제로, 천주사라는 내불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내불당을 상정하기는 곤란하고 각 殿마다 불상을 안치하는 공간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하기도 한다.⁶²⁾ 천주사 또는 내불당의 논의와 관련해 당나라 대명궁에는 德業寺·奉敬寺·昭德寺·護

58) 藤島玄治郎, 『朝鮮建築史論』(복각본), 경인문화사, 1969, 97쪽.

59) 藤島玄治郎, 앞의 책, 97~98쪽.

60)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8, 239쪽.

61) 정재훈, 『문화의 산길 들길』, 화산문화, 1996, 257쪽; 文明大, 「〈內佛堂圖〉에 나타난 內佛堂 建築考」, 『佛敎美術』 14, 東國大學校 博物館, 1997, 154쪽.

62) 강우방, 「동궁지(東宮址) 출토 불상」, 『考古美術』 153, 韓國美術史學會, 1982, 44쪽.

國天王寺 등 10여 개의 내불당 내지 사찰이 소재하였음⁶³⁾이 흥미롭다. 이를 감안하면 신라 궁궐도 복수의 내불당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월지 일대에서 출토된 불상 가운데는 특히 불두에 부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금동제 귀 1쌍(<그림 8>)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길이는 약 15cm로, 당초 월지 서편의 3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⁶⁴⁾ 최근 출토 현황을 새롭게 검토한 결과 3호 건물지가 아니라 2호 건물지 주변에서 화불 및 수정 등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밝혀졌다.⁶⁵⁾ 전체 높이가 179.8cm인 백률사 금동여래입상의 귀 길이가 약 18.8cm이므로,⁶⁶⁾ 15cm의 귀를 가진 불상의 전체 높이는 산술적으로 계



<그림 8> 월지 서편 출토 불상의 귀
(국립경주박물관 제공)

산하면 약 143cm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추정치가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형 불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규모를 고려하면 월지 서편 2호 건물지 주변에서 출토된 귀가 부착된 불상은 예배 대상으로 특정 건물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나아가 월지 서편 건물군 내에 내불당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해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한다.⁶⁷⁾

63) 梁銀景, 「新羅 金銅佛에 대한 分析과 出土地의 性格 糾明 -慶州地域 出土品을 중심으로-, 『신라의 금동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274쪽.

6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83~84쪽.

65) 김하영, 「신라 월지 출토 금동관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23~24쪽.

66) 백률사 금동여래입상의 전체 높이와 귀의 길이는 鄭富美, 「栢栗寺 金銅如來立像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2쪽·89쪽 참조.

여기서 관건은 월지 서편 건물군 내에 위치한 내불당을 천주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천주사가 월성의 서북쪽 내지 월지 남쪽에 있었다는 앞의 사료 B-2·3을 떠올리게 된다. 월지 서편 건물군은 일단 월성의 서북쪽과 월지의 남쪽이라는 방향과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천주사는 진평왕대(579~632)에 창건된 반면, 현재 까지의 발굴 결과로는 월지 서편 건물군의 건립 시기를 7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려보기는 곤란하므로 양자는 시기적으로도 약 50여 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에 월지 서편 건물군 내의 내불당과 천주사는 전혀 별개의 실체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월지에서 출토된 불상의 귀 1쌍은 궁궐 내에 천주사와는 별개의 내불당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만일 월지에서 출토된 보살관불이 월지 인근에 자리한 내불당의 벽면을 아미타정토로 구현하고 장엄하는 용도였다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수용한다면,⁶⁸⁾ 월지 인근의 내불당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였을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태자의居所인 東宮은 월지 인근에 위치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⁶⁹⁾ 『삼국사기』 직관지에 의하면 東宮官에는 僧房典이 소속되어 있었다.⁷⁰⁾ 1994년 중국 西安에서 당나라 동궁의 내불당인 佛堂院의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佛堂院의 존재가 입증되었다.⁷¹⁾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보면 신라 동궁에도 천주사 및 월지 서편 건물군 내의 내불당과는 별개의 내불당이 존재했을 법하다. 신라 궁궐 내에 내불당이 복수로 존재할 가능성은 그만큼 천주사의 위치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67) 梁銀景, 앞의 논문, 271~272쪽; 김동하, 「신라 왕경 사찰 불상의 재료 변화」, 『新羅文化』 5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1, 234~235쪽; 김하영, 앞의 논문, 27~30쪽.

68) 김하영, 앞의 논문, 86~96쪽.

69) 동궁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이현태, 「경주 동궁과 월지」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 『경주 동궁과 월지』 연구의 현단계와 쟁점(2022 신라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경주박물관, 2022, 34~38쪽 참고.

70)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志(中) 東宮衙條, “僧房典, 大舍二人, 從舍知二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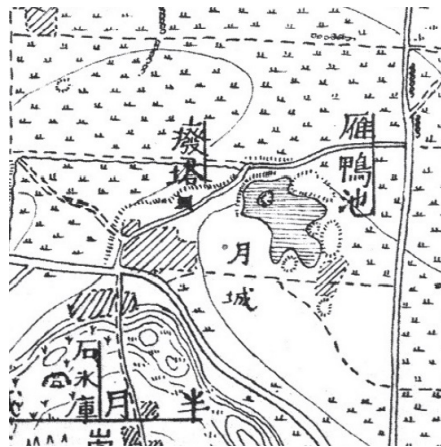
71) 西安市大明宮遺址保管所, 「西安發現的唐長安佛堂院殘碑」, 『考古』 11,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2002, 94쪽; 梁銀景, 앞의 논문, 274쪽.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 장을 달리해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IV. 천주사의 위치 비정과 朝元殿·內院의 새로운 이해

그동안 ‘동궁과 월지’의 서편에 자리한 대나무밭·연꽃밭 일대를 천주사의 유력한 후보지로 추정해 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1916년에 발간된 『朝鮮古蹟圖譜』 3에는 이곳에 廢塔이 표시되어 있어서⁷²⁾(〈그림 9〉)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⁷³⁾ 하지만 월지 일대에서 출토된 불상을 통해 천주사와는 별개의 내불당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천주사의 후보지로 생각해 온 ‘동궁과 월지’ 서편의 대나무밭·연꽃밭 일대가 설령 절터가 맞더라도 이를 천주사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일부에서는 ‘동궁과 월지’의 서편에 자리한 대나무밭·연꽃밭 일대가 天柱堡로 불린 점을 위치 비정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⁷⁴⁾

일제강점기 때 天柱堡로 불린 곳은 ‘동궁과 월지’ 서편의 대나무밭·연꽃밭 일대가 아니라 석빙고 입구의 북쪽에 해당하는 마을 대지였고, 『삼국유사』의 기록을 참고해 돌계단이 남아 있는 곳을 천주사지로 추정하였다고 한다.⁷⁵⁾ 일제강점기에 작



〈그림 9〉 월지 서편의 폐탑 위치
(朝鮮總督府, 1916)

72)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3, 1916, 312쪽.

7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2a), 107쪽.

74) 東潮·田中俊明, 앞의 책, 166쪽.

75) 大阪金太郎, 「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に就て」, 『朝鮮』 197, 朝鮮總督府, 1931, 86쪽.



〈그림 10〉 慶州古蹟案内圖(1926년)의 월성 주변
(경주시·경주문화원, 2016)

성된 경주 지도를 살펴보면 ‘동궁과 월지’의 서편에 자리한 대나무밭·연꽃밭 일대에 마을이 있었던 흔적은 전무하고, 석빙고의 정북쪽 지점에 마을이 있었던 양상이 확인된다.⁷⁶⁾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서 석빙고 북쪽에 천주사가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10〉 참조).

하지만 석빙고의 정북쪽 지

역인 발천 일대는 현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천주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유구나 유물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석빙고 정북쪽 지역에 과연 천주사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석빙고 정북쪽 지역에 천주사가 있었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은 天柱塚라는 지명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의 발굴 결과로는 발천 일대는 물론이고 월성 북쪽 일대에서 사찰의 흔적은 확인된 적이 없다.

황복사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자료에는 낭산 동편에 삼층석탑이 있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서⁷⁷⁾ 당연히 이곳을 황복사지라고 판단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보 지정 명칭도 2010년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에서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막상 절터를 발굴한 결과 황복사임을 뒷받침하는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禪院寺 또는 仁伯寺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곳이 황복사가 아닐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⁷⁸⁾ 이는 일제강점

76)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주 지도는 경주시·경주문화원, 『경주의 옛 지도』, 2016, 212~245쪽 참고.

77) 『東京通志』 卷7, 佛宇條, “皇福寺址, 在狼山東有三重石塔刻八部衆像”

78) 주보돈, 「낭산과 황복사」, 『경주 황복사지 - 역사적 의미 및 발굴성과 조명을 위한

기의 지명 또는 구전 등을 근거로 한 사찰의 위치 비정에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발굴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찰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天柱臺’라는 지명만으로 천주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천주사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시한 사료 B-2·3이 관심을 끈다. 『동국여지승람』과 『동경잡기』에 따르면 천주사는 월성의 서북쪽에 있었으며, 천주사의 북쪽에 월지가 위치하였다고 한다. 월성의 서북쪽 지역과 월지의 남쪽 지역은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료임에도 위치가 달리 기술되어 있어서 혼란스럽다. 하지만 천주사의 위치를 월성의 서북쪽으로 보건 아니면 월지의 남쪽으로 보건 ‘동궁과 월지’의 서편에 자리한 대나무밭·연꽃밭 일대와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천주사의 위치를 ‘동궁과 월지’의 서편에 자리한 대나무밭·연꽃밭 일대로 비정한 이들 가운데, 이러한 위치 비정이 사료 B-2·3과 충돌된다는 점을 깊이 있게 다룬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도 천주사에 대한 종래의 위치 비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천주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증이 더해가는데, 다음의 사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D-1.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문무왕이 궁 내에 안압지를 파고, 못가에 巫山 12봉을 쌓았다고 한다. 지금 못과 봉은 芬皇寺 남쪽 1,000여 보, 天柱寺의 터가 있는 동쪽 百武池의 동쪽에 있으며, 地勢가 가장 평평하고 돌과 자갈이 매우 많으니 바로 (이곳이) 옛 宮殿의 터이다.⁷⁹⁾

D-2. 文武王 甲戌에 궁 내에 못을 파고 돌을 쌓아 산을 만드니 무릇 12봉이었으며 화초를 심고 진귀한 짐승을 기르니, 지금 이른바 雁鴨池가 바로 이것이다. 그 서쪽이 곧 臨海殿으로, 일찍이 주춧돌과 섬돌이 흩어진 채 내버려졌고 天柱寺址는 100보로 가까운 절인데, 신라 때 內佛堂으로 또한 궁 안이었다. 못이 돌아가고 동

학술대회』(발표자료집), 문화재청·경상북도·경주시, 2022, 7~12쪽 및 17쪽.

79) 『東京雜記刊誤』, 輿地勝覽以狼山爲鎮山非也條, “案史, 文武王於宮內穿雁鴨池, 池邊築爲巫山十二峰. 今池與峰在芬皇寺南千餘步, 天柱寺基之東百武池之東, 地勢最平, 石礫最多, 正故宮殿之基也.”

쪽은 지세가 평평하고 돌과 자갈이 많으니, 權以鎭은 옛 宮殿의 터로 믿을만하다고 하였다.⁸⁰⁾

D-3. 天柱寺址는 월성 서북쪽에 있는데, 곧 신라의 內佛堂이었다.⁸¹⁾

1712년 권이진이 편찬한 『東京雜記刊誤』에 따르면 월지는 천주사지 동쪽에 있는 百武池의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D-1). 즉, 천주사는 월지의 서편에 위치했고 천주사와 월지 사이에는 百武池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던 셈이다. 1933년 경주에서 간행된 『東京通志』에는 天柱寺址와 월지 서편에 자리한 臨海殿 사이의 거리가 100보로 매우 가까웠으며(D-2), 천주사지는 월성의 서북쪽에 있었다(D-3)는 내용이 실려 있다. 1보는 일반적으로 1.5m로 환산되므로, 사료 D-2에 입각하면 임해전과 천주사지 사이의 거리는 약 150m에 불과했다. 이렇듯 사료 D-1~3의 내용은 천주사가 월지의 서쪽, 나아가 월성의 서북쪽에 위치하였다는 기록에 힘을 실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D-1~3은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 가령 D-1에 따르면 천주사는 월지의 서편 지역에 자리했고 월지와 천주사 사이에는 백무지라는 못이 있어야 하지만, 1712년 무렵 월지 서편 일대에 못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더욱이 D-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경통지』의 찬자는 D-1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권이진의 견해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경통지』의 찬자가 D-1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동경잡기』 권2의 堤堰條를 살펴보다도 월지 주변에 못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나아가 경주읍성 안팎의 중요 건물과 유적을 비교적 실제 모습에 가깝게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1798년 무렵에 제작된 『集慶殿舊基圖』 속의 慶州邑內全圖⁸²⁾에서도 월지 서편 일대에 못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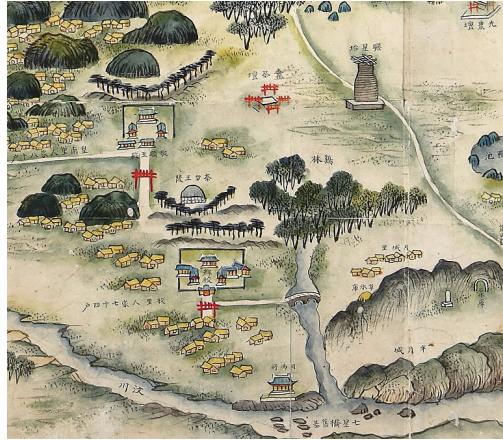
80) 『東京通志』 卷7, 宮室條, “文武王甲戌於宮內穿池, 積石爲山, 凡十有二峰, 種花卉養珍禽, 今所謂雁鴨池者是也. 其西卽臨海殿, 尙有礎砌散委而天柱寺址百步而近寺, 羅時內佛堂亦宮內也. 循池而東地平多石礫, 權以鎭以爲故宮殿遺基信然.”

81) 『東京通志』 卷7, 佛寺條, “天柱寺址在月城西北, 卽新羅內佛堂也.”

82) 權廷垠, 「朝鮮時代 古地圖에 나타난 繪畫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림 11> 참조). 이는 월지 서편 또는 월성 서북 쪽 일대에 천주사가 있었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더욱이 D-2에 기술된 것처럼 천주사와 임해전 사이의 거리가 100보(약 150m)였다면, 그 사이에 못이 존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천주사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다음의 사료가 관심을 끈다.



<그림 11> 慶州郡內全圖 속 월지 서편 일대
(국립경주박물관, 2013)

- E-1. 雁鴨池는 天柱寺 북쪽에 있다.⁸³⁾
- E-2. 雁鴨池는 天柱寺 북쪽에 있다.⁸⁴⁾
- E-3. (674년) 왕은 궁 안에 못을 파고 돌을 쌓아 산을 만들어 巫山 12봉을 형상화했으며, 화초를 심고 진귀한 짐승을 길렀다. 그 서쪽이 곧 臨海殿이다 <池는 지금 안압지를 일컫는데, 慶州 天柱寺 북쪽에 있다>.⁸⁵⁾
- E-4. 雁鴨池는 天柱寺 북쪽에 있다.⁸⁶⁾

월지(안압지)가 천주사 북쪽에 있었다는 점(E-1~4)은 천주사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안정복은 『東史綱目』을 편찬하면서 월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2007, 53쪽; 국립경주박물관, 『조선시대의 경주』(특별전 도록), 2013, 19쪽.

8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州府 古跡條, “雁鴨池, 在天柱寺北.”

84) 『東京雜記』 卷2, 古跡條, “雁鴨池, 在天柱寺北.”

85) 『東史綱目』 第4下, 甲戌 文武王 14年條, “王於宮內, 穿池積石爲山, 象巫山十二峯, 種花卉, 養珍禽. 其西卽臨海殿<池今稱雁鴨池, 慶州天柱寺北.>”

86) 『金鰲勝覽』 卷2, 古蹟條, “雁鴨池, 在天柱寺北.”

‘경주 천주사 북쪽’이라는 細註를 덧붙였다. 천주사를 기준으로 월지의 위치를 기술하였다는 것은 양자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며, 천주사의 북쪽에 월지가 있었다는 앞의 사료 B-2·3과도 일치한다.

천주사의 위치를 비정할 때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료 A에 언급된 不動石이다. 부동석은 천사 옥대와 함께 진평왕의 위대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므로,⁸⁷⁾ 신라인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겼을 법하다.⁸⁸⁾ 이와 관련해 광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월지 남쪽의 논 가운데에 부동석이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었으나 월지 주변을 정리하고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없어졌다는 지적⁸⁹⁾이 주목된다. 물론 현재 이 바위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기는 하나, 부동석의 존재 가능성과 그 위치를 가늠케 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전언이라는 점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95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지금의 월지 주차장에 큰 바위



〈그림 12〉 1954년 월지 남쪽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87) 윤선태, 앞의 논문(2019a), 263쪽.

88) 안지원, 앞의 논문, 83쪽; 李晶淑, 앞의 논문, 6쪽.

89) 권오찬, 『신라의 빛』(한글개정보급판), 慶州文化院, 2000, 278쪽. 참고로 이 책은 1980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2000년에는 한글개정보급판이 발행되었는데, 이 글에서 참고한 것은 후자이다. 아울러 저자인 권오찬이 대구사범대학(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교사로 재직하면서 20년 동안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하였음을 고려하면 그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그림 12>의 흰색 점선 부분 참조)도 유의할만하다.⁹⁰⁾ 이것을 과연 부동석과 연계된 돌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부동석과 관련한 전언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음을 방증하는 자료로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만일 지금의 월지 주차장 인근에 부동석이 있었다면 천주사지와 임해전 사이의 거리가 100보(약 150m)였다는 사료 D-2와도 부합되므로, 매우 흥미롭다. 이 같은 점과 더불어 발굴조사 결과 월지 남쪽에 자리한 일부 건물지가 674년 또는 679년보다 선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⁹¹⁾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월지 일대는 저습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7세기 후반에 성토 등의 대규모 대지 조성을 거친 후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음이 월지 동편과 서편 지역의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⁹²⁾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월지 남편 지역에 7세기 후반보다 선행하는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한층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월지의 동·서편과 달리 남편 일대는 이미 진평왕대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천주사의 위치를 월지 주변에서 찾는다면, 월지 서편보다 남편 일대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월지가 천주사 북쪽에 있다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 등을 종합하면 천주사의 위치는 월지 서쪽보다는 남쪽에서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천주사가 1976년에 발굴된 월지 남편 건물군 내에 자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그 남쪽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천주사의 위치가 이와 같다면 진평왕대의 궁궐도 이미 월성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곽으로 범위가 확

90) 참고로 1968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는 <그림 12>에서 흰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사라졌음이 확인된다.

91) 고경희, 『안압지』, 대원사, 1989, 51~55쪽; 이상준, 「동궁과 월지 조사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100, 韓國古代史學會, 2020, 33~35쪽.

9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 I 발굴조사보고서』, 2012b, 34~36쪽; 『慶州 東宮과 月池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보고서 -A건물지-』, 2018, 97~109쪽; 『경주 동궁과 월지 A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2022, 76~108쪽 및 94~103쪽.

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월성의 내부 공간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기존에 천주사지로 추정된 곳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해 논의의 방향을 조금 돌려 앞의 사료 C에 언급된 조원전의 구조에 주목해 보려고 한다.

사료 C에 따르면 조원전은 회랑을 둘렀고 전각은 북쪽에 위치하며, 그 앞에는 朝庭이, 남쪽 회랑 중앙에는 大門, 동·서쪽 회랑에는 小門이 있는 구조였다.⁹³⁾ 물론 이는 760년의 모습이고, 그 이전의 조원전도 같은 모습이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월성 내부의 지하물리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석빙고 남쪽 일대에 正殿이 위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⁹⁴⁾ 하지만 해당 지역(월성 C지구)의 통일신라시대 층위를 발굴한 결과, 적어도 사료 C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조원전의 영역과 비슷한 건물 배치 양상을 띠는 一廊의 건물군은 확인되지 않았다.⁹⁵⁾ 더욱이 월성 C지구의 중앙부 북쪽에 위치한 동서 방향의 장축을 가진 건물지는 內陣 減柱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正殿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지하물리탐사의 결과를 살피더라도⁹⁶⁾ 월성 내부에서 朝庭을 갖춘 대형 전각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통일신라 때 조원전을 비롯해 국가적 의례나 조회 등을 거행했던 공간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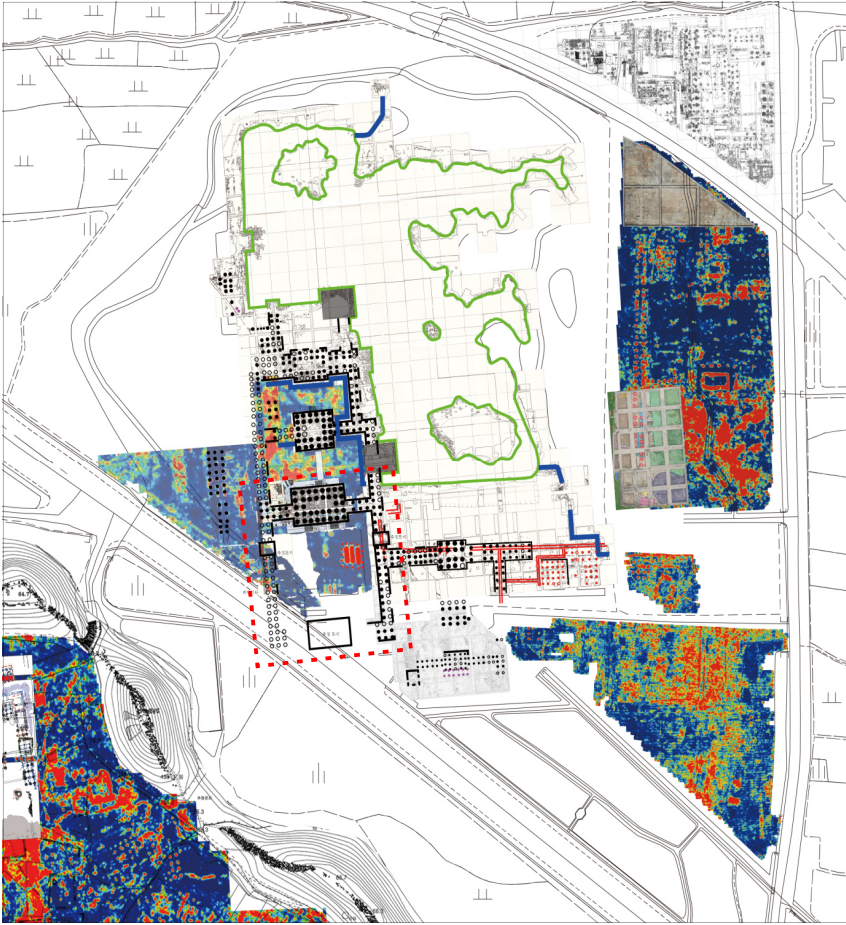
월성 내에서 正殿이 위치하였으리라고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에서 正殿의 존재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월성 내의 다른 지점에 正殿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도 마땅치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7세기 후반 이후의 正殿을 비롯한 중요 건물은 월성 내부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93) 전덕재, 앞의 책, 198~199쪽; 윤선태, 앞의 논문(2019a), 264쪽.

94) 전덕재, 앞의 책, 193~196쪽.

9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2 -발굴조사-』, 2021.

96) 월성 내 지하물리탐사의 결과는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月城 地表調査報告書』, 2004, 188~191쪽 및 217~227쪽; 『慶州 月城 基礎學術調査 III -地下 레이더 探查-』, 2010, 24~104쪽 참고.



<그림 13> ‘동궁과 월지’ 주변 건물군 복원 모식도(김경열, 2023)

월지 일대의 건물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최근 월지 서편 건물군은 건물의 배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태자가 아니라 국왕과 연관되었으리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⁹⁷⁾ 여

97) 尹武炳, 「新羅王宮考」,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9-1, 대한민국학술원, 2010, 109~114쪽; 윤선태, 「新羅 東宮의 位置와 ‘東宮官’機構」, 『新羅史學報』 46, 新

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7세기 후반이 되면 국정 운영의 중심 공간이 월성에서 월지 서편 건물군 일대로 옮겨졌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⁹⁸⁾ 이 같은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월지 서편 건물군의 중심 전각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자리한 A건물의 배치 양상과 회랑, 문지 등의 위치(<그림 13>의 빨간색 점선 부분)가 주목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760년 무렵의 조원전은 사방으로 회랑이 돌아가는 一廓 구조였고 그 일곽 내에서 조원전은 북쪽에 자리하며, 조원전 앞에는 조회를 열 수 있는 넓은 뜰이 있었고 남쪽 회랑의 가운데에는 大門이, 동·서쪽 회랑에는 小門이 각각 설치된 모습이었다.⁹⁹⁾ 조원전 일곽의 구조에 대한 이러한 추론이 틀리지 않았다면, 월지 서편 건물군 가운데 A건물과 그것을 둘러싼 회랑, 그리고 각 문의 위치는 마치 판박이처럼 조원전 일곽의 구조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건물 배치가 월성 내부나 월지 일대에서 흔히 보이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또는 지하물리탐사 결과로는 월지 서편의 A건물 일곽이 유일하다. 이에 월지 서편의 A건물을 통일신라의 조원전으로 보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애초부터 조원전이 월지 서편 건물군 내에 조영되지는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651년 진덕여왕이 조원전에서 百官들로부터 賀正禮를 받은 점¹⁰⁰⁾으로 보아 당시 조원전은 월성 내에 위치하였음이 분명하기

羅史學會, 2019b, 133~138쪽; 이동주, 「신라 동궁의 구조와 범위」, 『韓國古代史研究』 100, 韓國古代史學會, 2020, 151~157쪽; 이현태, 「신라 月池宮의 성격과 太子宮의 위치」, 『韓國古代史研究』 100, 韓國古代史學會, 2020a, 184~195쪽; 「신라 臨海殿과 月池宮의 성격 재론」, 『사학연구』 140, 한국사학회, 2020b, 49~58쪽; 「7세기 후반 월성 외곽의 공간적 재편과 그 의미 -월지 주변과 발친 유적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5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1, 18~22쪽; 김경열, 「동궁과 월지 주변 건물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월지 서편 A건물지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57, 新羅史學會, 2023, 188~197쪽.

98) 이현태, 앞의 논문(2021), 19~28쪽; 김경열, 앞의 논문, 193~197쪽.

99) 전덕재, 앞의 책, 198~199쪽; 윤선태, 앞의 논문(2019a), 264쪽.

100)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5年條,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始於此.”

때문이다. 기왕의 논의에 의하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인 7세기 후반에 월지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월지 서편에 국가적인 의례·행사의 장을 조성하고 국왕의 정무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여 한층 고양된 왕권과 통일된 국가의 면모를 과시하였다고 한다.¹⁰¹⁾ 이 과정에서 월성 내에 있던 기존의 正殿 대신 새롭게 건립된 正殿(월지 서편 A 건물)을 조원전으로 부르기 시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월성 내에서 사료 C에 언급된 조원전 일곽에 비견할 수 있는 건물군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경덕왕대 조원전의 서쪽 작은 문으로 나가면 탑 등이 있는 內院이 나왔다고 하는데(사료 C-③), 사료상 내원이 위치한 곳은 공교롭게도 종래에 천주사가 자리했으리라고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지(<그림 5> 참조)이다. 사료 C-③에 언급된 내원과 내궁을 선행 연구에서는 천주사와 관련지어 이해하였는데, 월지 서편의 대나무밭·연꽃밭 일대를 천주사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충분히 논의하였다. 오히려 사료 C-③의 내원과 내궁은 천주사 및 월지 서편 건물군 내의 내불당과는 별개의 또 다른 내불당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일전에 태자의 居所를 포함한 동궁의 위치를 월지 서편의 대나무밭·연꽃밭 일대로 비정한 바 있는데,¹⁰²⁾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나라 동궁에도 佛堂院이라 불리는 내불당이 존재하였다. 더구나 『삼국사기』에서 살펴지듯이 東宮官에 僧房典이 소속되어 있었음¹⁰³⁾을 염두에 둔다면, 조심스럽지만 통일신라의 동궁에도 내불당이 존재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나아가 『조선고적도보』 3에 표시된 폐탑(<그림 9>)이 그 위치에 실재했다면, 이 또한 동궁 내에 자리한 내불당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렇듯 월지 서편 건물군의 서쪽에 위치한 대나무밭·연꽃밭 일대는

101) 월지 서편 건물군의 성격과 위치 선정의 배경 등은 이현태, 앞의 논문(2021), 18~22쪽 참고.

102) 이현태, 앞의 논문(2020a), 211~213쪽.

103)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志(中) 東宮官條, “僧房典, 大舍二人, 從舍知二人.”

천주사가 아니라 동궁에 소속된 내불당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반면 천주사는 월지의 남쪽 일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월지 주변을 발굴조사할 때는 천주사와 동궁 내 내불당의 존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그동안 진평왕대에 건립된 천주사는 월지 서편에 있는 대나무밭·연꽃밭 일대에 위치하였으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의견을 가진 연구자의 상당수는 ‘天柱(寺)’銘 기와가 이곳에서 수습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월지 서편의 대나무밭·연꽃밭 일대는 천주사가 월성의 서북쪽 또는 월지 남쪽에 있었다는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경잡기』의 기록과 충돌됨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천주사의 위치를 월지의 서쪽으로 파악하면서 『삼국유사』 月明師兜率歌條에 등장하는 朝元殿의 서쪽에 자리한 內院을 천주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경덕왕대의 조원전이 월성 외부에 위치하였음이 전제되어야만 이러한 논의가 성립될 수 있다. 아쉽게도 조원전의 위치를 월성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렇듯 천주사의 위치와 관련해 거론되는 사료 간에는 충돌되는 점이 적지 않지만, 엄정한 사료 비판은 생략된 채 논의가 전개되었다.

종래에 여러 연구자들이 천주사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제시했던 것은 ‘天柱(寺)’銘 기와였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천주’명 암키와 편과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천주’명 수막새는 구입품이어서 정확한 출토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기와가 월지 서편의 대나무밭·연꽃밭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1970년대 월지 서편의 민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습되었다는 ‘천주사’명 기와는 실물은 물론이고 사진이나 도면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 그 결과 명문의 판독

이 타당한지조차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천주(사)’명기와를 가지고 천주사의 위치를 비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천주’명기와 외에도 월지 안팎에서 출토된 다수의 불상을 천주사와 연관 짓기도 한다. 하지만 문헌자료에는 천주사가 월성의 서북쪽 내지 월지 남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월지 안팎에서 출토된 불상을 천주사와 관련시키기는 힘들다. 오히려 월지 서편의 2호 건물지 주변에서 출토된 불상의 귀 1쌍은 월지 서편에 대형 불상을 모신 전각이 존재했을 가능성, 나아가 천주사와는 별개의 내불당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궁궐 내에 복수의 내불당이 존재했다면, 궁궐 내 사찰의 흔적이거나 불상을 무조건 천주사와 관련지를 필요는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천주사의 위치 비정은 원점에서 새롭게 접근하였다. 지금까지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동경잡기간오』와 『동경통지』에 수록된 천주사 관련 기사와 월성 북쪽 지역의 발굴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적어도 월성의 서북쪽 또는 월지의 서쪽 지역에 천주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대신 기왕의 연구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천주사 북쪽에 월지가 있다는 기록, 그리고 월지의 위치는 예외 없이 천주사 북쪽으로 기술된 점, 나아가 지금의 월지 주차장 부지에 광복 이전까지 진평왕의 천주사 행차로 인해 생긴 不動石으로 불린 큰 바위가 있었다는 전언에 주목했고, 결과적으로 천주사의 위치는 월지의 남쪽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진평왕대의 궁궐 범위가 월성 내부로 국한되지 않고 적어도 월지 주변까지 확장되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천주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왔던 『삼국유사』 月明師兜率歌條의 내원 및 조원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였다. 특히 경덕왕대의 조원전 일곽은 구조가 월지 서편의 A건물 일곽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월성 내의 조원전을 대신해 7세기 후반부터는 월지 서편의 A건물이 조원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울러 조원전의 서쪽에 있었던 내원은 천주사와는 무관하며, 동궁에 소속된 내불당일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것처럼 천주사의 위치를 월지 남쪽 일대로 새롭게 비정하기는 했지만, 천주사가 월성 서북쪽에 있었다는 기사가 왜 여러 문헌에 실렸는지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월지 남쪽 지역은 일부만 발굴이 이루어졌고 기왕에 천주사의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월지 서편의 대나무밭·연꽃밭이 아직 발굴된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향후 이 지역의 발굴 결과에 따라 천주사의 위치를 다시금 검토해야 할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엄정한 자료의 구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천주사의 새로운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고 말았다. 이러한 측면이 이 글이 갖는 한계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천주사의 위치 비정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에 노정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추후 월지 주변의 발굴조사가 진전되면 천주사의 위치와 궁궐의 구조를 새롭게 확보된 자료에 기반하여 다시금 논의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3년 0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東京雜記』, 『東京雜記刊誤』, 『東京通志』, 『金鰲勝覽』
金時習, 『梅月堂集』 卷12
柳得恭, 『東史綱目』
『東亞日報』, 『朝鮮日報』, 『京鄉新聞』
- 경주문화원, 『경주문화원 50년사 -1964~2014-』, 2014.
경주시·경주문화원, 『경주의 옛 지도』, 2016.
고경희, 『안압지』, 대원사, 1989.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197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月城 地表調査報告書』, 200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月城 基礎學術調査 III -地下 레이더 探查-』, 20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지역 폐사지 기초조사·연구』, 2012a.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 I 발굴조사보고서』, 2012b.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보고서 -A건물지-』, 201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2 -발굴조사-』, 202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동궁과 월지 A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2022.
國立慶州博物館, 『新羅瓦塼』(특별전 도록), 2000.
국립경주박물관, 『文化遺蹟分布地圖 -慶州市-』, 2008.
국립경주박물관, 『조선시대의 경주』(특별전 도록), 2013.
권오찬, 『신라의 빛』(한글개정보급판), 慶州文化院, 200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鳴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영남대학교박물관, 『隱逸의 秀麗한 夢 新羅 瓦當』(특별전 도록), 2005.
영남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유물목록집1 -와전-』, 2008.

- 李蘭暎 編, 『韓國金石文追補』(再版), 亞細亞文化社, 1976.
- 전덕재,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 정재훈, 『문화의 산길 들길』, 화산문화, 1996.
- 조유전, 『발굴이야기 -왕의 무덤에서 쓰레기장까지, 한국 고고학 발굴의 여정-』, 대원사, 1996.
- 진성규·이인철, 『신라의 불교사원 -역사·설화·유적·유물-』, 백산자료원, 2003.
- 韓國佛教研究院, 『新羅의 廢寺 I』, 一志社, 1974.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 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中世上·下)』, 亞細亞文化社, 1984.
- 東潮·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跡 1 -新羅篇(慶州)-』, 中央公論社, 1988.
-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복각본), 경인문화사, 1969.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3, 1916.
- 강우방, 「동궁지(東宮址) 출토 불상」, 『考古美術』 153, 韓國美術史學會, 1982, 44~45쪽.
- 權廷垠, 「朝鮮時代 古地圖에 나타난 繪畫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 김경열, 「동궁과 월지 주변 건물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월지 서편 A건물지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57, 新羅史學會, 2023, 161~209쪽.
- 김동하, 「신라 왕경 사찰 불상의 재료 변화」, 『新羅文化』 5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1, 225~255쪽.
- 金東華, 「新羅時代의 佛教思想」, 『亞細亞研究』 5-2,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2, 1~62쪽.
- 金壽泰, 「有懷堂 權以鎮의 「東京雜記刊誤」」, 『道山學報』 6, 道山學術研究院, 1997, 35~55쪽.
- 김하영, 「신라 월지 출토 금동관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柳煥星,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가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 新羅史學會, 2010, 129~169쪽.
- 文明大, 「〈內佛堂圖〉에 나타난 內佛堂 建築考」, 『佛教美術』 14, 東國大學校 博物館, 1997, 153~170쪽.

- 朴南守, 「신라 「法光寺石塔記」와 御龍省의 願堂 운영」, 『韓國古代史研究』 69, 韓國古代史學會, 2013, 217~252쪽.
-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8.
- 朴漢男, 「崔惟清의 生涯와 詩文分析 - 《同人之文四六》 등에 수록된 詩文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24, 國史編纂委員會, 1991, 121~156쪽.
- 신범규, 「신라 중고기 시위부의 활동범위와 주둔지 운용」, 『韓國史學報』 78, 高麗史學會, 2020, 41~68쪽.
- 辛鍾遠, 「新羅의 佛教傳來와 그 受容過程에 대한 再檢討」, 『白山學報』 22, 白山學會, 1977, 139~183쪽.
- 안지원, 「신라 眞平王代 帝釋信仰과 왕권」, 『歷史教育』 63, 歷史教育研究會, 1997, 65~98쪽.
- 梁承律, 「有懷堂 權以鎭의 新羅 溫井碑攷」, 『道山學報』 8, 道山學術研究院, 2001, 135~168쪽.
- 梁銀景, 「新羅 金銅佛에 대한 分析과 出土地의 性格 糾明 -慶州地域 出土品을 중심으로-」, 『신라의 금동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 양혜원, 「조선 초기 궁궐 사찰 ‘내원당(內願堂)’의 설치와 변동」, 『韓國思想史學』 69, 韓國思想史學會, 2021, 87~129쪽.
- 여호규, 「6~8세기 신라 왕궁의 구조와 정무·의례 공간의 분화」,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2014, 33~74쪽.
- 尹武炳, 「新羅王宮考」,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9-1, 대한민국학술원, 2010, 105~124쪽.
- 윤선태, 「역사 속의 월성」, 『한성에서 만난 신라 월성』(특별전 도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a.
- 윤선태, 「新羅 東宮의 位置와 ‘東宮官’機構」, 『新羅史學報』 46, 新羅史學會, 2019b, 127~154쪽.
- 윤선태, 「新羅王宮과 國家寺刹 -그 분포와 도로 체계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5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0, 93~119쪽.
- 이동주, 「신라 동궁의 구조와 범위」, 『韓國古代史研究』 100, 韓國古代史學會, 2020, 145~177쪽.
- 이병호, 「백제와 신라 왕실 여성의 崇佛 활동과 尼寺」, 『百濟文化』 6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21, 37~60쪽.

- 이상준, 「동궁과 월지 조사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100, 韓國古代史學會, 2020, 27~49쪽.
-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韓國史研究會, 1983, 81~114쪽.
- 李晶淑, 「眞平王代 王權強化와 帝釋信仰」, 『新羅文化』 16,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99, 1~17쪽.
- 이현태, 「신라 月池宮의 성격과 太子宮의 위치」, 『韓國古代史研究』 100, 韓國古代史學會, 2020a, 179~222쪽.
- 이현태, 「신라 臨海殿과 月池宮의 성격 재론」, 『사학연구』 140, 한국사학회, 2020b, 45~84쪽.
- 이현태, 「7세기 후반 월성 외곽의 공간적 재편과 그 의미 -월지 주변과 발천 유적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5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1, 9~35쪽.
- 이현태, 「‘경주 동궁과 월지’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 『‘경주 동궁과 월지’ 연구의 현단계와 쟁점』(2022 신라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경주박물관, 2022.
- 鄭富美, 「栢栗寺 金銅如來立像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주보돈, 「낭산과 황복사」, 『경주 황복사지 - 역사적 의미 및 발굴성과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발표자료집), 문화재청·경상북도·경주시, 2022.
- 차순철, 「慶州地域 寺院出土 平瓦의 需給關係 考察 -專用瓦·共用瓦·交流瓦를 中心으로-」, 『불교미술사학』 5,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7, 527~554쪽.
-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釜山史學會, 1984, 81~119쪽.
- 한국고고학회 편,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주역 정재훈(대답자: 박영복)」, 『일곱 원로에게 듣는 한국 고고학 60년』, 사회평론, 2008.
- 한기문, 「고려시대 內願堂의 기능과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8, 한국중세사학회, 2014, 265~299쪽.
- 韓炳三, 「雁鳴池名稱에 關하여」, 『考古美術』 153, 韓國美術史學會, 1982, 40~41쪽.
- 黃壽永,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 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3, 9~22쪽.

황인규, 「고려시대 내원당과 고승 -제 기록에 나타난 기사 검토 試攷-, 『普照思想』 37, 普照思想研究院, 2012, 99~147쪽.

大阪金太郎, 「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に就て」, 『朝鮮』 197, 朝鮮總督府, 1931, 81~88쪽.

西安市大明宮遺址保管所, 「西安發現的唐長安佛堂院殘碑」, 『考古』 11,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2002, 94쪽.

Review on the Determination of the Location of Silla's Cheonjusa Temple

Lee, Hyun-tae

Founded during the reign of King Jinpyeong of the Silla Dynasty, Cheonjusa Temple was also known as Naejeseokgoong and Naebuldang, both of which mean “Buddhist temple of the palace”. So far, it has been assumed that Cheonjusa Temple was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bamboo grove and the lotus garden to the west of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in Gyeongju, based on certain records related to the temple, such as a roof tile with an inscription, and Donggyeong japgi (Miscellaneous Records of the Eastern Capital, Gyeongju, written by Seong Won-muk). However, as the location of the excavation site of the roof tile with an inscription related to Cheonjusa Temple has not been formally identified, the actual relic has not been opened to the public, and the decoding of the inscription has not yet been verified, it is difficult to use that roof tile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Cheonjusa Temple.

The discovery of Buddhist statues near Wolji Pond and, more particularly, a pair of gilt-bronze ears near Building Site 2 to the west of Wolji Pond, which is assumed to have been related to Naebuldang, where a large Buddhist statue was enshrined, suggests that there was a separate Buddhist Hall named Naebuldang, as distinct from Cheonjusa Temple.

Meanwhile, according to various records, including the Dongguk yeoji seungnam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Wolji Pond was located north of Cheonjusa Temple. In fact, all of the records state precisely that Wolji Pond was located to the north of Cheonjusa Temple. Most notably, one record states that a large rock called Budongseok, now lost, was located to the south of Wolji Pond in the period before Korean independence. Judging from such records, it is highly likely that Cheonjusa Temple was located to the south of Wolji Pond, rather than to the west, as previously estimated. Furthermore, the location of Cheonjusa Temple shows the aspect of the expansion of the royal palace to the outskirts of Wolseong Palace during the reign of King Jinpyeong, and suggests that the space inside the palace had reached its limits. Moreover, the review on the Dosolga of Wolmyeongsa Item in the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uggests that the Joweon-jeon structure and Naewon (Buddhist temple of the palace) could not have been linked with Cheonjusa Temple, whereas the buildings to the west of Wolji Pond and Donggung Palace could have been related with it.

keywords :

Cheonjusa Temple,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Naebuldang(Buddhist temple of the palace), the Joweon-jeon structure, Naewon(palace's Buddhist temple)

